

GS칼텍스, 어린이 힐링으로 사회 공헌

GS칼텍스(대표 허진수)가 학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상처받은 아동들을 <통합예술>을 이용해 치유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.

GS칼텍스는 3월7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굿네이버스 등 사회단체와 <GS칼텍스 어린이 마음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> 협약식을 가졌다.

GS칼텍스는 2013년 전국 13개 아동기관 및 센터에서 2000명을 치료하는 등 3년 동안 1만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.

아동 치유를 담당할 치료사를 선발해 미술, 무용동작, 연극 등 <통합예술 집단치료 슈퍼바이저> 과정을 별도로 교육한다.

관련교육은 박승숙 교수(미술), 박희석 교수(연극), 남희경·최희아 교수(무용동작) 등 한국의 대표 치유 전문가들이 맡을 예정이다.

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은 “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사업인 어린이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 하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13/03/06>